

2017서울시9 A책형(영보이 국어 해설)

- 영보이 저서 -

- ◆ 2018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 201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8/18 출간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블로그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7서울9 A 책형 문1)

- | | |
|---------------------------|--------------------------|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X) → [설릉][ㄹㄹ] - Seol~~l~~leung
 < 'ㄹㄹ'로 소리 나므로 'll' >

◆ 표준 발음법 제5장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난로[날: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광한루[광:할루] / 대관령[대:괘령] / 칼날[칼랄]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할논지[할른지]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2: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략][ㄹㄹ] allyak >

② 학여울[항녀울][ㅇㄴ] - Hangnyeoul (O) < 'ㅇㄴ'으로 소리 나므로 'ngn'을 써서 'Hangnyeoul'가 옳다.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X) → Nakdonggang

◆ 발음은 [낙똥강]이 맞지만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X) → Jiphyeonjeon

◆ 발음은 [지편전]이 맞지만 로마자 표기 시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ㅎ’인 ‘h’를 넣어 ‘Jiphyeonjeon’이라 적어야 한다.

정답: ②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2)

- ① 방학 동안 몸이 보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편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① 방학 동안 몸이 보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X) → 볼는

◆ 붙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 활용: 붙어, 붙으니, 붙는 >

★ ‘붙다’가 모음과 결합할 경우에만 ‘ㄷ’이 ‘ㄹ’로 바뀐다. 어느 경우에도 받침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붙다, 붙고, 붙지, 붙는 / 붙어, 붙은 등으로 활용한다.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X) → 넉넉지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영보이 암기tip) 두더지는 넉넉지 않은 도토리를 지령이에게 주었다. < 두더지 - 넉넉지 - 지령이 >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거북하 <u>지</u>	거북 <u>지</u>
생각하 <u>지</u> 대	생각 <u>지</u> 대
생각하 <u>다</u> 못해	생각 <u>다</u> 못해
깨끗하 <u>지</u> 않다	깨끗 <u>지</u> 않다
넉넉하 <u>지</u> 않다	<u>넉넉지</u> 않다
못하 <u>지</u> 않다	못 <u>지</u> 않다
섭섭하 <u>지</u> 않다	섭섭 <u>지</u> 않다
익숙하 <u>지</u> 않다	익숙 <u>지</u> 않다

③ 오늘 뒤편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뒤편이’가 아니라 ‘뒤편이’가 옳다.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X) → 자료로서

◆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

정답: ③

정답: ①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 ◆ 두괄식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이다.
- ◆ 이 글은 선비정신의 강인성은 의리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다. 두괄식은 가장 중심 내용이자 포괄적인 내용이 제일 앞에 온다. 따라서 ㉠이 처음으로 온다. 그 다음으로 올 것은 의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적당하므로 ㉡과 ㉢이 순서대로 온다. < ㉡과 ㉢은 놀치의 일화이다. >
- ◆ 그 다음 ㉠의 죽죽도로 보아 ㉡, ㉢다음에 ㉠죽죽의 일화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 따라서 전체 순서는 ㉠ - ㉡ - ㉢ - ㉠이다. 정답: ③

◆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5)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 이 작품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다. 1941년 작품으로 이 시는 어린 시절의 애틋하고 그리운 추억을 회상하며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즉,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X) → 어린 시절을 떠올릴 뿐 청자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X) →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로 보아 희망에 찬 마음이 드러난다.
-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O)

◆ 마지막 두 연에서 알 수 있듯이 별은 그리움의 대상인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X) → 보기 ③의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별은 그리움의 대상인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별이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

다.

정답: ③

◆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7서울9 A책형 문6)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 등이 있다.

① 살다 - 죽다 : 상보(相補)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불가능한 반의어 <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없다. >

② 높다 - 낮다 : 정도(程道)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가능한 반의어 /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태가 가능하다. < 5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도시에서는 20 ~ 30층 건물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

③ 늙다 - 젊다 : 정도(程道)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가능한 반의어 /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상태가 가능하다. < 현대 사회에서 40 ~ 50대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

④ 뜨겁다 - 차갑다 : 정도(程道)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가능한 반의어 /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가능하다. < 미지근한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할 수 있다. >

cf. 방향(方向) 반의어: 맞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립하는 쌍. < 위 - 아래 / 남편 - 아내 >
정답: ①

◆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7)

< 보기 >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 파생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 파생어: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덜-'에 접미사 '-개'가 붙은 '덜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덜-'이 붙은 '덜버선' 따위가 있다. >

◆ 개(‘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살구 = 개살구
◆ 헛(‘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웃음 = 헛웃음
◆ 낚시 + 질(‘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낚시질
◆ 지우 + 개(‘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지우개

① 건어물(乾魚物) (O): 건(‘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어물(실질 형태소) = 파생어

② 금지곡(禁止曲): 금지(실질 형태소) + 곡(실질 형태소) = 합성어

③ 한자음(漢字音): 한자(실질 형태소) + 음(실질 형태소) = 합성어

④ 핵폭발(核爆發): 핵(실질 형태소) + 폭발(실질 형태소) = 합성어

정답: ①

◆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8)

- ① 님금 ② 닛거샤 ③ 바올 ④ 가비야븐

① 님금 (O) < ㄴ, ㄹ, ㅁ, ㅂ : 초성 17자에 포함된다. >

② 닛거샤 (O) < ㄴ, ㄷ, ㅂ, ㅅ : 초성 17자에 포함된다. >

③ 바올 (O) < ㅂ, ㅅ : 초성 17자에 포함된다. >

④ 가비야븐 (X) → '보(순경음비읍)'은 훈민정음 28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초성 17자에 없다. 정답: ④

◎영보이 암기tip)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강남미사일 >

초성(初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혓소리
순음(脣音)	ㅁ	ㅂ, ㅃ		입술소리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잇소리
후음(喉音)	ㅇ	ㅎ		목청소리

중성(中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제자 원리
ㆍ	ㆁ, ㅏ	㆏, ㅑ	하늘의 모양
ㅡ	ㅓ, ㅕ	ㅗ, ㅛ	땅의 모양
ㅣ			서있는 사람의 모습

◆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9)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결론짓는 것.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으로 보아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 ‘누구도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로 보아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 개그맨이 맛에 일가견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 ◆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는지 몰라’로 보아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정답: ①

◆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 10)

내 이상과 계획은 이러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 까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 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쯤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이 작품은 채만식의 '치숙'이다.

◆ 채만식의 '치숙': 채만식이 지은 단편 소설. 일본인 주인에 빌붙어 자신의 미래를 기약하는 조카의 시선으로 몰락한 사회주의자 숙부를 비판하는 형식을 통하여 오히려 조카의 태도가 비판을 당하게 하는 풍자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1938년에 발표)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X) →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로 보아 서술자 '나'는 조선 사람을 비판하고 내지인(일본인)을 옹호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X) → '내 이상과 계획은 이러거든요.' ~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로 보아 전지적 시점이 아닌 **1인칭 시점**이다. 채만식의 '치숙'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X) →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계획을 말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O)

◆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짝 건너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로 보아 **일본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서술자를 독자가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유도**한다. 또한 **자기의 힘으로 성공할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무능을 독자가 비판하게 유도**한다.

정답: ④

◆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2017서울9 A책형 문11)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① 헛수고 ② 분주함 ③ 성급함 ④ 뒷고생

㉠ 가물에 도랑 친다 -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고 거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과 ㉡의 공통점은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① '헛수고'가 되겠다.

cf. ④ 뒷고생: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고생.

정답: ①

◆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7서울시9 A책형 문12)

- ① 陶冶- 도치 ② 改悛- 개전 ③ 殺到- 살도 ④ 汨沒- 일몰

◆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9 A책형 문12)

① 陶冶 - 도치 (X) → 도야(陶冶)

1)陶冶(도야): 陶(질그릇 도, 사람 이름 요) 冶(풀무 야)

a)의미: 도기를 만드는 일과 죄를 주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를’을 가리키는 陶冶(도야)는 ‘陶(질그릇 도, 사람 이름 요) 冶(풀무 야)’를 쓰는데, ‘陶(질그릇 도, 사람 이름 요)’에는 ‘ㅃ(언덕 부)’가 들어가고 ‘冶(풀무 야)’에는 ‘ㅇ(얼음 빙)’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언덕(ㅃ: 언덕 부) 위에서 얼음(ㅇ: 얼음 빙)을 손에 쥐고 인격을 陶冶(도야)하다.

cf. 倒置(도치): 倒(넘어질 도) 置(둘 치). 발음: [도:치](긴소리)

1)의미: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꿈.

◆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꿈’을 가리키는 倒置(도치)는 ‘倒(넘어질 도) 置(둘 치)’를 쓰는데, ‘倒(넘어질 도)’에는 ‘ㅇ(사람 인)’이 들어가고 ‘置(둘 치)’에는 ‘ㅃ(그물 망)’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선장은 사람(ㅇ: 사람 인)과 그물(ㅃ: 그물 망)의 위치를 倒置(도치)하였다.

② 改悛 - 개전 (O): 改(고칠 개) 悛(고칠 전). 발음: [개:전](긴소리)

1)의미: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2)개전(改悛)의 정이 현저(顯著)하다. → 국어 순화(醇化):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3)영어사전: contrition(뉘우침), repent(뉘우치다, 회개하다), repentance(뉘우침, 회개(悔改)), penitence(뉘우침, 참회(懺悔))

◆ 改悛(개전)은 ‘改(고칠 개) 悛(고칠 전)’을 쓰는데, ‘改(고칠 개)’는 ‘ㅇ(자기 기)’가 들어가고 ‘悛(고칠 전)’에는 ‘ㅅ(마음 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ㅇ: 자기 기) 마음(ㅅ: 마음 심)을 고쳐 改悛(개전)하다.

③ 殺到 - 살도 (X) → 쇄도(殺到)

1)殺到(쇄도): 발음: [쇄:도](긴소리). 殺(빠를 쇄, 죽일 살) 到(이를 도).

a)의미: 전화,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들.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들.

b)영어사전: pour(쏟다, 붓다, 쇄도(殺到)하다), flood(홍수, 범람(汎濫/汎濫), 쇄도), inundate(범람시키다, 쇄도하다)

◆ ‘전화,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들.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들’을 의미하는 殺到(쇄도)는 ‘殺(빠를 쇄, 죽일 살) 到(이를 도)’를 쓰는데, ‘殺(빠를 쇄)’에는 ‘ㅅ(작을 소)’가 얼핏 보이고 ‘到(이를 도)’에는 ‘ㅇ(칼 도)’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작지만(ㅅ: 작을 소) 과일을 깎는 데 유용한 칼(ㅇ: 칼 도)의 주문이 殺到(쇄도)하고 있다.

★‘殺’은 ‘빠를 쏘, 죽일 살’ 등으로 소리가 난다.

1)殺(죽일 살): 殺人(살인) 殺生(살생)

④ 汨沒 - 일몰 (X) → **골몰**(汨沒)

1)汨沒(골몰): 汨(골몰할 골) 沒(빠질 몰).

a)의미: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b)영어사전: give oneself up to(1.항복하다, 단념하다 2.(~로/~에게) 자수하다 3. (~에) 전념하다), devote oneself to(…에 일신을 바치다, ~에 전념(專念)하다, ~에 빠지다, ~에 골몰/몰두하다), bury oneself in(몰두하다, 빠지다), ‘be immersed in, be absorbed in, be engrossed in’(~에 몰두(沒頭)하다) be up to the eyes/ears in(몰두해 있다), be hung on(~에 열중해 있다).

◆ 汨沒(골몰)은 ‘汨(골몰할 골) 沒(빠질 몰)’을 쓰는데, ‘汨(골몰할 골)’에는 ‘ㄱ(물 수)’가 들어가고 ‘沒(빠질 몰)’에도 ‘ㄱ(물 수)’가 들어간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滑(어지러울 골)이 아닌 ‘汨(골몰할 골)’이고 漈(풀이름 몰)이 아닌 ‘沒(빠질 몰)’이다. >

☺**영보이 암기tip**) **몰**(ㄱ: 물 수)만 먹으며 공부에 **汨沒**(골몰)한 나머지 **몰**(ㄱ: 물 수) 2리터를 삼시간에 먹어버렸다.

cf. 日沒(일몰): 日(해 일) 沒(빠질 몰)

1)의미: 해가 짐. = 日入(일입)

◆ ‘해가 짐’을 가리키는 日沒(일몰)은 ‘汨(골몰할 골)’이 아니라 ‘日(해 일)’을 쓴다.

정답: ②

◆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13)

<보기>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 일 밖에 없다.

① ㉠ ② ㉡ ③ ㉢ ④ ㉣

㉠ 창 밖 (X) → 창밖 < 창밖은 창문의 밖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 우단천 (X) → 우단V천

◆ 우단: 우단은 벨벳과 유의어로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이란 뜻이다. ‘우단 천’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cf. 표준국어대사전에 ‘우단천’이란 단어는 없다. >

㉢ 30년 동안 (O) - ‘년’은 해를 세는 단위로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30V년’이 원칙이나 ‘30년’도 가능하다. 그리고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로 하나의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일 밖에 (X) → 일밖에 <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 다음 <보기>의 ㉠ ~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2017서울9 A책형 문14)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 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① ㉠ ② ㉡ ③ ㉢ ④ ㉣

◆ ㉢의 연락을 취해 본 사람은 ‘우리’이다. 그러나 ㉠, ㉡, ㉣의 주어는 ‘환자’이다.

◆ (환자가)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 (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정답: ③

◆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15)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② ㉡(1920년대) - ㉣(1930년대) - ㉢(1950년대) - ㉠(1970년대)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카프는 1925년에 결성됨 >

◆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1925년** 8월에 박영희, 김기진, 이기영 등 주로 신경향파 작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문학 단체. 프롤레타리아 문학인의 전위적 단체로, 정치성이 짙은 문학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1935년에 해산되었다.

◆ 님의 침묵(1926): 한용운의 시집. 대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최초의 임>, <잠 없는 꿈>,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 90편의 시가 실려 있다. 대부분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쓴 서정시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애족(愛族)의 정신이 짙게 나타나 있다. **1926년**에 간행되었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김기림의 '기상도'는 **1936년**에 발표되었다. >

◆ 김기림: 본명은 인손(仁孫). 호는 편석촌(片石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더니즘 문학 운동을 선언하고 그 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그에 입각한 시를 썼다.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시집에 《바다와 나비》, 《기상도(1936)》, 시론집에 《시의 이해》, 《시론(詩論)》 따위가 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초토의 시는 **1956년** 발표되었다. 한국전쟁이 배경>

◆ 구상: 본명은 구상준, 기독교적 세계관, 자기고백과 자기 성찰이 작품에 담겨 있음. '발 일기(1967)'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신경림의 '농무(1973)'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받는 농민들의 분노를 담음. >

◆ 고은: '문의마을에 가서'(1974), '입산'(1977), '새벽길'(1978), '화살'(1978) 등 현실 저항시를 씀.

◆ 김지하: '오적'(1970), '황토'(1970), '타는 목마름'(1975) 등 현실 저항시를 씀.

정답: ②

◆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16)

-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굵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O) = 가닐거리다

- ② 굵적대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X) →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 굵적거리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O) = 꼬약거리다
- ④ 끝끝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O) = 끝끝거리다
- 정답: ②

◆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2017서울시9 A책형 문17)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據

◆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9 A책형 문17)

- ① 토의 - 討義 (X) → 討議(토의)

1) 討議(토의): 討(칠 토) 議(의논할 의). 발음: [토:의/토:이](긴소리)

a) 의미: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을 가리키는 討議(토의)는 ‘討(칠 토) 議(의논할 의)’를 쓰는데, ‘討(칠 토)’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가고 ‘議(의논할 의)’에도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그리고 ‘義(옳을 의)’가 아니라 ‘議(의논할 의)’를 쓴다.

☺**영보이 암기tip** 討議(토의)를 할 때에는 할머니 **말씀**(言: 말씀 언)과 할아버지 **말씀**(言: 말씀 언)을 모두 들어야 한다.

cf. 討論(토론): 討(칠 토) 論(논할 론(논)). 발음: [토:론](긴소리)

1) 의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 討論(토론)에도 두 한자 모두 ‘言(말씀 언)’이 들어가는데, ‘論(논할 론)’에는 ‘冊(책)’도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영보이 암기tip** 책(冊: 책 책)을 보며 말씀(言: 말씀 언)과 **말씀**(言: 말씀 언)으로 討論(토론)하다.

- ② 사고 - 思考 (O)

1) 思考(사고): 思(생각 사) 考(생각할 고/살필 고) / a) 의미: 생각하고 궁리(窮理)함.

◆ ‘생각하고 궁리(窮理)함’을 가리키는 思考(사고)는 ‘思(생각 사) 考(생각할 고/살필 고)’를 쓰는데, ‘思(생각 사)’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가고 ‘考(생각할 고/살필 고)’에는 ‘耂(늙을 로)’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마음(心: 마음 심)이 깊은 **늙은**(耂: 늙을 로) 노인이 논리적으로 思考(사고)한다.

* **동음이의어 < 사고 >**

1) 事故(사고): 事(일 사) 故(연고 고). 발음: [사:고](긴소리)

a) 의미: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

◆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리키는 事故(사고)는 ‘事(일 사) 故(연고 고)’를 쓰는데, ‘事(일 사)’는 그 자체로 쓰고 ‘故(연고 고)’에는 ‘欠(칠 복)’이 들어간다.

2) 史庫(사고): 史(역사 사) 庫(곳집 고). 발음: [사:고](긴소리)

a) 의미: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실록 따위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서고. 강화의 정족산, 무주의 적상산, 봉화의 태백산, 평창의 오대산에 있었다.

◆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실록 따위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서고’를 가리키는 史庫(사고)는 ‘史(역사 사) 庫(곳집 고)’를 쓰는데, ‘史(역사 사)’는 그 자체로 쓰고 ‘庫(곳집 고)’에는 ‘車(수레 차/거)’가 들어간다.

③ 선택 - 先擇 (X) → 選擇(선택)

1) 選擇(선택): 選(가릴 선) 擇(가릴 택). 발음: [선:택](긴소리)

a) 의미: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을 가리키는 選擇(선택)은 ‘選(가릴 선) 擇(가릴 택)’을 쓰는데, ‘選(가릴 선)’에는 ‘巳(뱀 사)’가 들어가고 ‘擇(가릴 택)’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 cf. 先(먼저 선) >

☺영보이 암기tip) 크리스마스 선물(贈物)로 뱀(巳: 뱀 사)은 손(扌: 손 수)을 選擇(선택)하였다. < cf. 선물(贈物)은 ‘贈(선물 선)’을 쓰는데, ‘月(달 월)’이 들어간다. >

④ 준거 - 準舉 (X) → 準據(준거)

1) 準據(준거): 準(준할 준, 콧마루 절) 據(근거 거). 발음: [준:거](긴소리)

a) 의미: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 표준(標準)

◆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가리키는 準據(준거)는 ‘準(준할 준, 콧마루 절) 據(근거 거)’를 쓰는데, ‘準(준할 준, 콧마루 절)’에는 ‘隹(새 추)’가 들어가고 ‘據(근거 거)’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 cf. 舉(들 거) >

☺영보이 암기tip) 영리한 새(隹: 새 추)는 손(扌: 손 수)으로 직접 가리키며 판단(判斷)의 準據(준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답: ②

◆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2017서울9 A책형 문18)

-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 ① 국+만 → [궁만] : 비음화(ㄴ, ㄹ, ㅇ) + 대치 < ‘ㄱ’이 ‘ㅇ’으로 대치(=교체) >
- ② 물+난리 → [물랄리] : 유음화(ㄴ) + 대치 < ‘ㄴ’이 ‘ㄹ’로 대치(=교체) >
- ③ 입+고 → [입꼬] : 된소리되기(ㄷ) + 대치 < ‘ㄱ’이 ‘ㄱ’으로 대치(=교체) >

④ 한+여름 → [한녀름] : ‘ㄴ’첨가 < 표준발음법 제7장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 흙-이불[흔:니불] / 막-일[망닐] / 샅-일[상닐] / 맨-입[맨닙] / 꽃-잎[꼇닙] / 내복-약[내:봉낙] / **한-여름[한녀름]** / 남존-여비[남존녀비] / 신-여성[신녀성] / 색-연필[생년필] / 직행-열차[지캥널차] / 녹막-염[능망념] / 콩-엿[콩념] / 담-요[담:뇨] / 눈-요기[눈뇨기] / 영업-용[영업농] / 식용-유[시공뉴] / 국민-윤리[궁민눌리] / 밤-옷[밤:눈] > 정답: ④

◆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19)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로 보아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보기②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가 적절하다. 정답: ②

◆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9 A책형 문20)

<보기>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X) → 소유욕과 관계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X) → 성실한 삶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X) → 종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O)
- ◆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로 보아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정답: ④

- 영보이 저서 -

- ◆ 2018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 201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8/18 출간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블로그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